후진정치 노사분규 선진국 진입 막는다

■비전 2030 민간작업단 분석

후진적인 정치체계, 공공부문 과다, 노동시장 경직성 등은 한 국가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작은 정부, 친기업적 조세개혁, 개방화, 규제완화 등 신자유의적 정책들이 선진국 진입에는 필요하지만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속도와 일정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작은정부·친기업 국가들 '국민소득 2만弗'

30일 비전2030 민간작업단에 따르면 삼성경제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의 연구결과를 감안해 세계 각국의 사회적자본, 성장. 분배, 인적자원, 성장동력, 국제화 등 5개 분야를 점검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한 선진국의 경우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노사정 합의로 사회·경제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나라는 또 규제철폐와 세금인하, 개방, 경쟁, 외국자본 유치, 글로벌인재 확보, 연구개발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단은 1만달러 달성 후 10년도 채 안돼 2만달러에 도달한 싱가포르와 일본, 홍콩, 스위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영국, 친기업적 성장 우선의 시장주의 정책을 유지한 미국, 성장을 통한 복지를 추구해온 스웨덴, 시장과 무역활동의 완전 개방을 추진한 네덜란드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지난 1996년에 2만달러를 돌파한 아일랜드의 경우 1987년 이후 5차례에 걸친 사회협약을 통해 노사관계를 안정시켰고 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1만달러를 넘었으나 2만달러 도달에 실패한 나라들은 여야가 심하게 대립하는 등 정치체제가 후진적이며 노사분규는 장기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2만달러 진입에 실패했던 스페인·그리스·포르투갈·아르헨티나·대만 등은 공통적으로 정치체제가 불안했다.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친기업적 조세개혁에 나섰으며, 실패한 나라들은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고 사회보장 부담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성공한 나라들은 개방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였고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을 동등하게 대우했지만, 실패한 국가들은 수입규제가 지나치거나 외자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비전2030 민간작업단은 이런 각국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자율적이며 작은 정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친기업적 조세개혁, 개방화, 민영화, 규제완화, 시장주의 등 신자유적 정책이 선진국 진입요인의 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자유의적 정책은 선진국에서는 성공요인에 해당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실패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규제와 감독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면서 속도와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작업단은 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의 생산적 관리체계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소득편차가 과도하면 호혜적 분쟁해결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61)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그의 지지자들이 29일 상파울루 시내에서 축하행진을 벌이고 있다. /상파울루AP=연합뉴스

룰라 브라질 대통령 재선

결선투표서 61% 득표

29일 실시된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61)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 제 3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1억2천500만명의 유권자들이 참가한 이날 결선투표에서 집권 노동자당(PT)을 이끌고 있는 룰라 대통령은 60.8%의 득표율을 올려 39.2%에 그친 브라질 사회민주당(PSDB) 소속 제랄도 알키민(53) 전 상파울루 주지사를 여유있게 제치고 승리를 확정지었다.

룰라 대통령은 5천829만여명으로부터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천754만여표를 얻은 알키민 전 주지사와는 2천만표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알키민 전 주지사는 이에 앞서 밤 8시22분께 룰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를 축하하고 자신의 패배를 공식 인정했다.

이로써 룰라 대통령은 지난 1995~1998년과 1999~2002년 연임한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조 전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사상 두 번째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상파울루=연합뉴스

나이지리아 여객기 추락…100여명 사망

104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나이지리아 ADC 항공의 여객기 한 대가 29일 수도 아부자 공항 근처에서 추락했다고 현지 라디오방송 레이 파워 FM과 항공업계, 정부 소식통들이 밝혔다.

나이지리아의 국가비방관리청 한 소식통은 "이 항공기에는 모두 104명이 타고 있었고 이륙 직후 추락했다"며 "이 항공기는 아부자를 이륙해 북서부 지역 소코토로 갈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국영 라디오 방송은 생존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으나 민간 방송인 채널 텔레비전은 최소한 6명의 생존자가 있다고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항공부의 사고조사 책임자인 앤거스 오조아카는 추락사고 신고를 받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코토 주 정부 대변인은 이 항공기 추락으로 나이지리아 이슬람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인 소코토주 술탄 모하마두 마키도가 숨졌다고 밝혔다.

민간항공사인 ADC 항공은 지난 96년 11월 추락 사고를 당한 바 있다. 당시 나이지리아 주요 도시인 라고스 외곽 지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으로 탑승자 143명 전원이 사망했다.

/아부자AP·로이터=연합뉴스

"부시, 중간선거 패배시 北과 양자협상 동의할 수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미국 내 정치적 압력에 굴복, 북한과의 양자협상에 동의할 수도 있다고 전 국무부 북한전문가인 케네스 퀴노네스 일본 아키타 국제대학 한국학 교수가 전망했다.

퀴노네스는 이날 제주에서 가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은 외부 압력 때문에 정책을 바꾸지는 않는다"면서 "만약 부시 대통령이 가까운 미래에 정책을 바꾸려고 한다면 이는 국내 정치적 압력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대미직접회담 요구를 거부하며 북한에 우선적인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해왔지만 내달 7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장악력을 잃게 되면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시작하도록 할 것이라고 퀴노네스는 내다봤다. /연합뉴스

'카레' 쿠르쿠민 치매 진행 억제

카레의 주성분인 쿠르쿠민이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치매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 의과대학의 밀란 피알라 박사는 의학전문지 '알츠하이머병 저널(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쿠르쿠민이 면역세포의 일종인 대식세포(macrophage)로 하여금 치매 환자의 뇌에서 형성되는 악성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게 한다고 밝힌 것으로 헬스데이 뉴스가 28일 보도했다.

대식세포는 면역체계의 "보병(步兵)"격으로 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병든 세포 등 해로운 폐기물들을 먹어치운다.

/연합뉴스

■재선 배경과 전망

'저소득층 절대 지지' 바탕 양극화 해소 주력
사회통합 최대과제…실용노선·외교정책 탄력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29일 실시된 대선 결선투표에서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그동안 자신과 집권당을 둘러싸고 전개돼온 스캔들을 극복하고 다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룰라 대통령은 1년 전만 해도 집권당의 야당의원 매수의혹 폭로로 대통령직 자진사퇴를 요구받는 처지를 겪었다. 야권과 법조계로부터 탄핵발의 공세가 이어지며 최대 무기인 국민적 지지도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대선후보 등록 이후 압도적 우위를 달리던 여론조사 지지율은 하락세를 거듭했으며, 결국 1차 투표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했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은 폭넓은 국민적 인기를 바탕으로 또 한번 위기에서 살아나는 뚝심을 발휘했다. 룰라 대통령은 방송사들이 주최한 TV 토론에 불참하면서까지 서민층을 찾아가는 현장 유세를 계속했으며, 저소득층과 빈민층, 노동자, 농민들은 이런 룰라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했다.

재선에 성공한 룰라 대통령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국민적 인기와 강력한 카리스마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4년간 각종 개혁작업을 주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한 셈이다.

룰라 대통령은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남미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을 축으로 하는 통합 과정에 더욱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를 가입시켜 메르코수르의 몸집을 불린데 이어 중남미의 또 다른 경제기구인 안데스공동체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 대륙을 휩쓴 좌파 열풍이 페루와 멕시코 선거를 거치면서 주춤해진데 이어 룰라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으로서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등의 반미(反美) 노선으로 혼란스러워진 대(對) 중남미 외교에 한결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은 재선 성공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상파울루=연합뉴스

AIRREX 에어렉스 플레이트 히터
소리없이 다가오는 훈훈함~
전기히터의 명품 플레이트히터
• AH-71PS(3~5평) • AH-730(6~7평) • AH-790(22~24평)

모델명	평 형
AH-72S	5~6평형
AH-750	10~12평형
AH-760	12~14평형

AIRREX 에어렉스 원적외선 히터
로터리히터와 열풍기의 장점을 하나로
화력조절과 원거리 입체 난방까지
• AH-100(10~20평) • AH-250(15~25평) • AH-600(30~40평)

모델명	평 형
AH-300	25~35평형
AH-600F	35~45평형
AH-800	45~55평형
AH-300F	50~60평형

•사무실 •식당 •교회
난방비 절약! 써보신 분이 권해드립니다.
실외용 사무실, 학교, 학원, 호텔, 은행, 레스토랑, 휴게소, 병원, 도서관, 연수원, 매장, 교회, 주유소 등
실내용 골프장, 놀이동산, 카센터, 공장, 야외행사장, 레저시설, 스키장, 터미널, 공사현장 등 개방된 장소
찾아오시는길
무등산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2동 1069 (062)371-7095, 011-601-7701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최고의 교수진, 알찬 교육, 최상의 시설】

재직자과정	교육내용	개 강
주택관리사	최종 마무리 특강 (1차 과목)	11월1일 (월~금 19:00~22:30)
정보화기초-1	윈도우, 인터넷, 문서편집활용	11월6일 (월~금 19:00~21:00)
정보화기초-2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11월6일 (월~금 19:00~21:00)
사무자동화	문서편집활용,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상담후 결정

■ 기타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원제 모집
• 수료 후 100~80% 환급
• 수강절차
훈련 상담 ▶훈련수강신청서작성 ▶훈련기관에 제출 ▶수강
시내버스 노선
■도청(외환은행):1, 2, 5, 8, 9, 15, 19, 20, 22, 34, 55, 111, 117, 222, 555, 385, 777
■전남여고 앞:3, 11, 27, 38, 55, 111, 118
■예술의 거리입구:2, 6, 11, 25, 28, 30, 118, 222, 518, 666
현대직업전문학교
위 치 : 전남여고건너편 (김재규경찰학원 內)
☎ 224-4560, 232-1088

공무원 야간반 첫진도
공무원 이론반 첫진도 개강 11월1일
★ 행정/세무/교육행정/검찰/교정직 -주/야간반 운영★
전통과 합격률 실력있는 강좌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뒤 222-4560

두배빠른 공무원 합격시스템 - www.hanbitgosi.co.kr
2007 국가직/ 지방직대비 공무원
법원/ 검찰직 박종연 손동규 이규태 최강 드림팀
농업직 농촌지도사 농업연구사 농업직렬 4관왕 양승훈 교수팀
개강▶11월 1일 (홀/짝수반 매월 첫진도 개강)
한빛공무원학원
북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234-0234